

로컬리더스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결실 눈앞

군산경찰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개최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위해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1일 개정면사무소에서 개정면 각 기관장,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친근하는 경찰' 군산경찰 치안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경찰의 핵심 치안정책인 4대 사과의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교통안전 선진화 등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해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피드백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보건소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43만원)의 가정으로 가처분 월 6400원, 조제분유는 월 8800원을 지원한다.

단 조제분유는 신모의 사망·질병(원발 치료, 방산치료 등)으로 인해 모두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승진자 임용식 개최

익산경찰서는 1일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각 과장 및 동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위 오태일 등 7명에 대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112상황실 오태일 경위, 수사지원팀 박현철 경위, 사이버수사팀 오선아 경위, 합영파출소 박문수 경위는 경감으로 일 계급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경비교통과 문운진 경사, 중앙지구대 송의정 경사, 중앙지구대 하승수 경사는 경위로 일 계급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또한 이등민 서장이 직접 승진자의 어깨 위에 계급장을 달아 주고 동료 직원들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영원 기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 등 마무리 단계...새만금사업 추진 청신호

그동안 새만금유역 상류 주요염원으로서 주목받아온 왕궁특수지역의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어 새만금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30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발표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한센인 양로시설 신개축, 축사철거 및 수립대 조성, 주민편의 시설 설치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왕궁특수지역의 모습이 환골탈태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현재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사업비 130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사업비 254억원)을 추진 중이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오염행위 줄이기 운동과 주·야간 및 휴일 취약지역에 수질오염 지도단속으로 BOD기준 2009년 121.4㎍/l이었던 익산천 수질은 매년 개선되어 2015년 평균 5.3㎍/l

로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또한 심한 축산악취로 통행인들을 불편하게 했던 악취는 2015년 6월부터 익산시에서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도점검으로 종전 악취희석배수 30에서 현재는 8로 크게 개선되어 인근 지역 생활환경이 좋아져 왕궁특수지역 거주 주민은 물론 인근 촌포, 삼례지역 주민들도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노천건조 등으로 비만 오면 공공수역에 흘러들어가 오염물질이 새만금 수계 수질오염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 받았다.

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그동안 농가로부터 관료로 가축분뇨를 이송 처리하던 방식을 농가마다 저류조를 설치하여 여기에 모인 가축분뇨를 탱크로리 차

량을 이용하여 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는 축산농가에 미생물을 배양하여 공급하고 악취 저감 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익산농장 2개소, 금오농장 1개소, 신촌농장 1개소를 선정하여 2015년부터 악취를 포집하여 분석한 결과 악취는 점진적으로 저감되어 평균악취 농도는 희석배수 8로 나타나 농장 생활환경이 쾌활할 만한 개선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왕궁천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면 민경강 수계 수질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미생물 보급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공급지역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현업추진과 휴폐업 추사를 매입해 나가면 더 이상 왕궁특수지역이 수질 및 악취오염원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영향 군산경제 타격

군산조선소 희망퇴직 이어 하청업체 대규모 실직사태 예상

정부의 조선 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인력감축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악영향이 군산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소장 여운화)에 따르면 주체권은행으로부터 자구노력 요구를 받고 중공업 전체 인원의 10%내외인 3000여명을 구조조정할 예정이며, 군산조선소는 오는 4일까지 희망퇴직 대상자에 대한 퇴직신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 대상자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과 기장급 이상 생산직이다.

군산조선소의 경우 지난달 30일 현

재 사무직 28명 중 24명, 생산직 20명 중 14명으로 총 38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 및 인력 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조선소는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주말·휴일 근무 등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달부터 오후 6시 이후 진행하던 연장근로가 폐지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오후 5시부터 1시간씩 하청 고령 연장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각종 연

장근로가 모두 폐지되는 7월 이후에는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의 임금이 현재 수준에서 최대 30%까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조선소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타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플랜트 협력사의 경우 임금이 이미 10% 삭감된 상황에서 8월 들어서는 최대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원청사인 군산조선소의 희망퇴직에 이은 하청업체의 대규모 실직사태가 예상되고 있어 군산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군산=문정곤기자

(주)삼보판지, 토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체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의 투자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달 10일 투자유치각서를 체결한 (주)삼보판지가 지난달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삼보판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관산업존 44,985㎡(약13,600평)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

인 공장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들어 미국 레오아테니, LCM코리아, S바이오, 전동가공식품협회 등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 분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273 공구가 올 하반기 분양공고를 할 경우 많은 기업들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

업단지는 전체 공정을 45.2%를 보이고 있고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분양 공고된 면적 38만4,790㎡ 대비 분양계약이 완료된 면적은 15만8,081㎡로 약 41.1%의 분양 계약율을 보이고 있다.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부터 활발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원광대병원-전주한방병원 익산분원 양·한방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발 세미나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과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익산분원이 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양·한방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한방 의료 분야에서 국내 유수의 의료 수준을 갖춘 두 병원은 현대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1차 세미나에 이어 지난 27일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이날 2차 세미나를 연 것이다.

이날 열린 2차 세미나에서는 신

한방통합 암센터 김강신 교수, 대장항문외과 박원철 교수, 한방병원이 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양·한방 통합진료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한방 의료 분야에서 국내 유수의 의료 수준을 갖춘 두 병원은 현대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1차 세미나에 이어 지난 27일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이날 2차 세미나를 연 것이다.

이날 열린 2차 세미나에서는 신영과 정진성 교수-한방병원 5내과 윤종민 교수, 재활의학과 노세을 교수-한방재활의학과 이정 한 교수, 산부인과 김병룡 교수-한방부인과 조한백 교수 등 6개교의 의료 수준을 갖춘 두 병원은 현대 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1차 세미나에 이어 지난 27일 관계자 회의를 갖고 이날 2차 세미나를 연 것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주얼리단지 복귀기업 초청 간담회

정현을 익산시장은 1일 시청 시장실에서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 주얼리 단지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최인수(주)대이패션주얼리 대표와 수년간 국외 진출 주얼리기업 유치에 공로가 큰 구자원(주)익산체인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 협력 경제도시 익산 만들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정현을 시장은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 자리에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정 시장은 '투자여력이 감소한

중국진출기업들과 달리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주)대이패션주얼리에 감사드린다'며 "시는 이를 발판으로 경영 환경 등 변수가 큰 중국진출기업들의 국내이전에 대한 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부터 중국진출 주얼리 기업 유치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구자원(주)익산체인 대표에게 주얼리 산업 특성상 기업의 규모, 접근성 등 어려운 점을 풀어주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동참해주시는 등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임피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대책 추진

군산시가 임피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준공한 임피산업단지는 17만6243㎡의 산업용지 중 13만854㎡가 미분양된 상태로, 군산시는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시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부담과 입주업체 중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과 새만금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4개의 광필지를 7개의 소필지로 분할했으며, 입주 대상에 가구 제조업과 기타 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그 결과 소필지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의 문의와 계약이 이어지면서 임피산업단지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리”를 사랑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쓰면 피드백이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리” 실제 설치!

청소액 [막스]

막스: 최장수 (500-1000ml)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막스: 최장수 (500-1000ml)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막스: 최장수 (500-1000ml)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